

# 자긍심·끈기·애사심 갖춘 우수 기능인 인정받아

## 인쇄·가공 분야 장인메달 수상

추성만 / (주)정원산업 생산2과 과장

**계** 기도는 기능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5명의 기능인을 선정, 장인증서와 순금 10돈으로 제작된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 7월 5일 2/4분기 경기도 장인메달 수상식에서 인쇄·가공 분야 장인으로 (주)정원산업 추성만 생산2과 과장이 선정, 영광을 안았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김종선 사장님과 서홍석 전무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 인쇄·가공업을 생으로 삼아온 것에 대해 새삼 보람과 함께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추성만 과장은 “노력하는 대가는 항상 찾아온다는 마음으로 일해온 것이 수상의 영광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기쁨을 표현했다.

시골에서 태어난 추 과장은 많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가슴속에 남아있었다.

군 제대후 일자리를 모색하던 그는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무슨 일이든 주



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1980년 지금의 (주)정원산업인 삼원포장공업사에 입사, 남들보다 2~3배의 노력으로 임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입사했던 80년대, 지금도 3D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쇄·가공업의 당시 작업환경은 여느 업체와 마찬가지로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안양공장에서 근무할 때에는 지금처럼 자동화 시스템이 자리잡지 못해 수동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등 여건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있을 때마다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추성만 과장은 (주)정원산업을 첫 직장으로 시작, 만 22년간 자긍심과 끈기로 폴리백 그라비아 인쇄 및 가공에 주력해온 결과, 이제는 모든 기계의 운전 및 관리, 진단 능력으로 업계에서 우수한 기능인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과거, (주)정원산업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 품질 · 기술 · 가격 경쟁력 강조

최선을 다한 추성만 과장의 노력은 80년도 5색도 인쇄기를 비롯해 94년 7색도 인쇄기, 92년 12색도기, 14색도기, 97년도 15색도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국산개발에 참여, 성공을 거두는데 한 몫을 차지했다.

특히 92년 14색도기는 개발 당시, 수입대체효과 5억원이라는 팔목할 만한 실적을 이뤄냈고, 14, 15 색도기는 색도의 다변화 및 분리형 인쇄, 연속 인쇄기술로 두 배의 생산성 향상을 나타내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추 과장은 품질, 기술, 가격 경쟁에서 앞서야만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토대로 (주)정원산업이 알찬 경영으로 안정적 지속 성장을 이루는데 앞장서왔다.

20여년 간 한 우물을 팠다는 것, 그것도 한 직장에서 근속을 한 것에 대해 추 과장은 회사에 대한 애착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며 (주)정원산업이 한단계 한단계 발전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큼 뿌듯한 순간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요즘 세대를 보면 매 순간 금전적 이유같은 조건을 따라 수도 없이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 그런 사람들에게 ‘거울을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씩 되돌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무엇인지 깨우치길 바랍니다.”

추성만 과장은 “언제나 ‘저축’을 강조하는 (주)정원산업 김종선 사장의 인생철학이 자신의 삶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회사 직원들을 내 가족처럼 대하는 김 사장의 모습에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정원산업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추 과장은 근속 기간동안 (주)정원산업의 가족들을 만난 것이 무엇보다도 큰 자산이라고 했다.

그는 정년 퇴임하는 날까지 입사초기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 다른 목표가 없다고 털어놓으면서 후배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그라비아 인쇄 업계가 협회를 중심으로 교류가 활발해져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비쳤다.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할 때도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한다는 그는 인터뷰 시종일관 장인메달 수상에 대해 자신은 부족함이 많으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폴리백 인쇄 · 가공 장인 추성만 과장, 그는 너무나 인간적인, 진정한 장인이다. ☐

박초혜 기자